2022년 제14호 방송심의보고서

2022. 4. 1. ~ 4. 7.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4. 1.	시청률	0.078

【총 평】

동해 산불 피해 복구과정의 애로사항과 식목일을 맞이해 나무 심기를 장려하는 소식이 주목도를 높였다. 최근 IT기술을 활용한 합승 서비스 '반반택시'와 1인가구가 늘어나는 세태를 반영한 '공유주방' 등 생활밀착형 이야기가 시청자의 시선을 끌었다.

특히 '동해 산불' 복구 시작은 실태와 문제점, 대책 등을 고루 갖춘 탄탄한 구성이 돋보였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과 피해보상금으로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광객 감소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다양한 여행 캠페인에 나선다는 움직임까지 언급해 완성도를 높였다. 또 식목일 앞당겨 '나무심기'는 나무를 심자는 왜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나무를 심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한 점이 설득력을 높였다. 이밖에 합승서비스 반반택시의 취지와 호응도, 1인 가구 공유주방이 인기를 모으는 이유 등 수용자 만족도를 충족시켰다.

【구성 및 내용】

■ '동해 산불' 피해, 마을 복구 작업 시작

동해시 산불로 인해 등대마을의 유명 카페, 거리 등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지만 산불 이재민들은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겨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상인 및 시민단체들은 여러 창구를 통해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 온난화 여파로 식목일 앞당겨 '나무 심기'

서울 금천구는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아열대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어 식목일 보다 열흘 정도 앞서 나무심기 행사를 마련했다.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낮춰주고 나무 한 그루가 50년 동안 주는 효과가 1억4천만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 40년 만에 부활, 합승 서비스 '반반택시' 시민 반응은?

택시합승서비스인 반반택시는 목적지까지 동선이 70% 일치하면 앱에서 자동 연결해 준다. 동성끼리만 합승이 가능하며, 자동정산으로 요금 시비문제를 해결했다.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10까지 운행하는 반반택시는 서울 전역에서 운행하고 있다.

■ 1인 가구 '같이 부엌' 함께 요리하며 영양·마음 채워요

성남 판교종합사회복지관 1인 가구 공유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 2020년 3곳으로 시작한 성남시 '같이 부엌'은 높은 관심 속에 12곳으로 늘어났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영양을 채워주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공유주방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 생산자와 직접 거래 하는 '친환경 농부시장' 인기

서울에서 친환경 농부시장 '마르쉐'가 열려 전국 각지에서 생산자 40팀이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했다. 생산자들은 새로운 판매 및 소통 창구가 열려 만족하고 있다. 쓰레기 없는 시장을 지향해 장바구니, 다회용기를 사용을 권장했다.

프로그램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방송일자	2022. 4. 2.	시청률	0.027

【총 평】

‘세계적인 K-팝 스타 BTS’와 ‘강남 K-팝’에서는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는 물론 연간 5.5조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BTS의 성공요인, 활약상, 파급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이 밖에 BTS 해외공연과 히트 곡 리뷰, 유엔총회 연설 등을 재조명하고 이전 K-팝 역사와 향후 과제를 짚어본 구성이 유의미했다.

‘한국을 달리는 챔보의 V로그’는 강남 속 K-팝 거리를 찾아 포미닛, 슈퍼주니어, 2PM, 소녀시대, BTS 등 한류스타 아트토이를 소개하고 아미의 성지인 식당을 찾아 BTS가 즐겨 먹었던 음식을 먹으며 BTS의 연습생시절 자취를 따라간 구성이 몰입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세계적인 K-팝 스타 BTS’와 ‘강남 K-팝’에서는 BTS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한국어 열풍, 한국여행, 한국 의류, 한국 음식등에 대한 해외 파급효과를 진단함으로써 음악산업의 선순환 영향을 분석했고, BTS가 어떻게 세계적인 K-팝 스타가 됐는지 그 성공요인을 분석해보고 해외 팬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확인해본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코로나19로 임해 공연예술계가 침체되었지만 BTS로 인해 K-팝은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BTS 효과로 한류가 단지 아이돌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고 관련 산업들도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다. BTS의 히트곡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은 한국말로 노래해 한국어 배우기 열풍을 일으켰다. BTS가 한국의 문화, 언어, 음악 그 모든 것을 알리고 있다. 이탈리아 팬은 BTS가 만들어 먹는 ‘달고나 커피’를 보고 로마에 달고나 커피를 판매하는 가게를 차렸다. 또한 BTS 때문에 한국에 가봐야겠다, 한복을 입어봐야겠다는 해외 팬들이 생기며 산업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BTS 연평균 효과는 5조 5천억 원에 이른다. 2002년 보아가 일본에 진출하며 1조 원의 경제효과를 발생시켰으며, BTS가 5배 이상의 산업효과를 불러왔다. BTS는 음악 예술을 넘어 음악산업이 되었다. BTS는 K-팝 스타 최초로 2018년 제73차 UN 총회에서 연설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특사로 참여해 연설과 함께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K-팝 스타 최초로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했다. BTS의 성공요인은 퍼포먼스로 공연장에서 내뿜는 열정,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가사가 성공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BTS 해외팬인 인도인 코말은 영상인터뷰에서 BTS 때문에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을 달리는 챔보의 V-로그’는 강남의 K-팝 성지를 소개했다. 강남에는 1km의 K-Star Load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는 한국의 유명 아이돌에 대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BTS가 자주 밥을 먹었던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은 내외부가 BTS 포스터 등으로 가득하다. 이런 포스터는 아미가 직접 식당을 방문해 부착한 것이다. 이 식당에서 BTS가 자주 먹던 음식은 흑돼지 돌솥비빔밥으로 일명 방탄 비빔밥이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4. 2.	시청률	0.030

【총 평】

‘봄날의 통영을 좋아하세요?’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여행작가로 활동하는 주인공이 통영에 자리를 잡으며 주변을 예술적 공간으로 확장하는 이야기를 소개했다. 유명 예술인들이 머물며 예술적 영감을 얻었던 통영의 아름다움과 주인공이 이웃과 함께 일궈나가고자 하는 삶의 지향점을 조화롭게 전달했다. 특히 동네를 멋스럽게 하려면 맛집, 커피, 그림, 미술관, 책방이 있어야 한다는 가치에 맞게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을 잘 담아냈다. 귀촌인과 함께 통영으로 귀촌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아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노년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통영에서 살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여행작가인 주인공의 일상을 소개했다. 손으로 사진을 찍어내듯 정성스럽게 일기를 그림으로 남기고 있는 그는 올해로 귀촌한 지 6년째로 접어들었다.

푸른 바닷물과 사람 사는 집들이 옹기종기 어울려져 있는 통영시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통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이 좋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일어나면 파란 하늘과 맑은 바다가 탁! 보일 때마다 그때마다 오길 잘했다. 이런 설렘을 갖고 아침에 눈을 뜨는 건 너무 행복해요. 이런 건 서울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라고 말했다.

동네의 작은 책방에는 주인공의 책도 있다. 전 세계를 다니며 그곳에서 만난 일상의 모습을 기록한 ‘여행, 작품이 되다’를 펴냈고, 인기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나는 일러스트레이터다’와 통영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면서 ‘밥장님! 어떻게 통영까지 가셨어요?’를 펴냈다. 동네벽화를 차곡차곡 그리는 이유는 동네분들도 보고 여행자들도 보면서 동네 사람들 스스로가 이렇게 꾸며나가는구나 하고 느끼기 바라는 이유이다.

주인공은 근대 초기 유럽에서 성행하던 살롱을 구현해보고 싶어서 작업장 겸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예술가들이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며 꿈을 펼칠 수 있게 자리를 펼쳐주고 있다. 낡은 마을의 벽에 그림을 입혀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살롱을 마련해 문화를 흐르게 하면서, 통영은 그런 힘을 보듬어 주고 있다. 살롱에는 오늘도 문화를 사랑하는 예술가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라는 정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살롱의 주인장으로 좋은 공간을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작가로서 작품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주인공은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목표도 강박이고, 강박이 있으면 삶이 되게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강박을 목표하고 착각하는 순간 사람은 힘들어진다. “목표를 달성하는 짧은 순간들 그 몇 번을 위해서 내 인생을 계속 소진하는 것은 결코 삶을 즐기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4. 3.	시청률	0.022

【총 평】

최근 북한에서 화성-17형 ICBM 발사를 비롯한 연이은 무력시위,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재개 움직임 등에 대한 배경, 대응방안을 긴급 진단한 기획이 돋보였다. 북한의 핵실험장 복구에 대한 진단에서 북미, 남북협상을 위한 수단이라는 의견과 북한의 비합리적 행보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시각이 엇갈려 주목도를 높였다.

'이슈텔링'에서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은 북한의 봄농사 준비상황을 소개했는데, 대북제재 여파로 유류와 비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거름으로 분뇨를 쓰고 농기계 대신 소로 농사를 짓는 북한의 어려운 실상이 전달됐다. 결국 북한이 영농까지 차질을 빚을 정도로 악화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해결방안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구성 및 내용】

북한은 2월 말부터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고 3월 16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3월 20일에는 방사포를 발사했고, 3월 25일에는 ICBM인 화성-17형 시험발사 홍보영상을 관영매체에서 내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며 핵실험 재개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영변 핵시설 확장 움직임이 포착된 이래 올해 3월초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도 위성으로 포착되고 있다. 2018년 당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보여주기 식으로 추정된다. 미국 전문가들은 복구에 6개월도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는데 또다시 핵실험의 당위성이 있냐는 의문이 있다. 이에 북한의 움직임이 진정한 핵실험 재개라기보다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경고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슈텔링'은 북한의 봄 농사를 소개했다. 북한의 농민들은 4월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벌이는 거름전투가 하는데 인분을 모아 농장에 가져다주는 일이다. 1인당 150kg에서 많게는 500kg까지 담당한다. 인분에 지푸라기, 흙, 가축의 배설물을 섞어서 만든 퇴비 재료를 발효시킨다. 북한에서 인분 퇴비를 고집하는 이유는 북한 땅의 토질이 좋지 않고 대북제재로 인해 화학비료 재료를 들여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이 변을 모으기 위해 식량사정으로 많이 먹고 많이 배출할 수 없어 개똥을 모으는 일도 많고 인분 도둑질도 이뤄지곤 한다. 그래서 거름전투 기간에는 화장실 보안에 신경을 쓴다.

북한에서 씨를 뿌릴 때는 주로 봄에 밀과 보리씨를 뿌린다. 4월이 끝나기 전 씨 뿌리기 작업을 끝내야 하는 종자의 경우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뿌리다 보니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농기계를 운용할만한 기름이 없어 놀고 있는 기계들이 많다. 이에 기계 대신 소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군수물자로도 등록되어 있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꼰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2. 4. 3.	시청률	0.017

【총 평】

‘유품정리사’와 ‘고인의 마지막 이사’에서는 고인과 세상의 마지막 이별을 정리하는 유품정리사 김새별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독사와 자살, 살인 등 특수한 죽음의 현장을 청소하고 유품을 정리하는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이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냈다. 특히 고인의 트라우마를 가족들은 모르고 세상을 떠났는데, 유품정리사가 알게 됨으로서 느꼈던 감정을 담담히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삶과 이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새별 씨는 자신의 하는 일을 영상으로 올려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긍정적인 면을 깨우쳐주고, 영상의 수익금으로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돕고 있다.

【구성 및 내용】

유품정리사인 김새별 씨는 일반 죽음에 대한 의뢰가 아니라, 고독사, 자살, 살인 등 특수한 죽음에 대한 유품정리를 의뢰받는다. 특수한 경우의 죽음이므로 돌아가신 후 이틀에서 길게는 일년 만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부패 상태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유족들의 의뢰를 받고 정리를 한다. 일단 돌아가신 분의 자리를 특수 청소 후 유품 정리를 하는데, 유족들은 대부분 유품을 버려달라고 한다. 고독사가 세입자였던 경우 집주인이 연락을 해온다. 시신과 집안 청소를 먼저하고, 유품정리를 한다. 현물같은 유품과 정서적 유품을 분류하고, 나머지는 폐기한다.
김새별 씨는 젊었을 때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 그때 장례를 치러주시던 장례지도사분들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아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일을 할 기회가 생겨서 시작했다. 장례지도사로 일하다 유품 정리를 하게 됐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평상시 고인과 연락도 없던 유족들이 뒤늦게 찾아와 금품을 요구하거나 뉴스 사회면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잔혹한 범죄의 현장을 찾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고인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전쟁 유공자의 일기를 보면서 고인이 전쟁과 전투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알게 되었는데, 주변분들은 고인의 생전 분노에 찬 모습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망자의 유품을 보면서 살아생전 고인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데, 오히려 망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삶의 씁쓸함을 느낀다.
무엇보다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가족이 있기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김새별 씨는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고독사를 하는 이유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며,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으라고 권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2. 4. 3.	시청률	0.011

【총 평】

‘울진산불, 피해 현장을 가다’편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낸 동해안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의 과정을 장소별, 시간대별로 살펴보았다. 특히 산불발생의 원인, 진화과정, 신속대피,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을 돌아보며 차후 산불 재발생을 막기 위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가장 오래 계속된 산불’로 기록됐지만 다행스럽게 인명피해가 없었고, 마을주민의 신속한 대피, 재난문자 발송 등 관계당국의 신속한 대처,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의식이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도시락을 제공한 식당 업주, 무료로 음료를 제공한 카페주인, 헬기에 진화용 물을 공급한 레미콘 차량기사들의 미담 스토리가 위기에 빛을 발했다. 산불주불이 진화된 이후 산불 피해 복구 상황, 특별재난지역 선포이후 이재민의 주거공간, 주민 지원, 영농 재개여부 등을 분야별로 적절하게 다루었다.

【구성 및 내용】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인근 민가에서 설치한 CCTV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다. 순조롭게 진화될 것으로 봤던 산불진화 작업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됐다. 불길은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까지 위협하기도 했다. 화재 2일차 불길은 바람방향이 다시 바뀌면서 울진 쪽으로 남하했다. 당일 오후 울진군, 죽변면, 울진읍까지 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은 대피하기 시작했다. 3월 8일에는 금강송 군락지까지 불씨가 번졌다. 결국 봄비가 내려며 산불은 화재 10일차인 3월 13일 진화된 것으로 선언되었다.

이번 산불로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중 한 곳인 울진군 북면 신화 2리는 28가구 중 22가구가 전소되었다. 마을을 삼면으로 둘러싼 산림도 모두 불에 타 버렸다. 산불이 민가를 덮쳤음에도 인명 피해는 0명인 것이 다행이었다.

‘울진산불, 피해 현장을 가다’편은 경북 울진 산불피해 상황과 산불진화 노력, 주민들의 발 빠른 대응,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정부의 대책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었다. 1986년 관련통계 집계이후 가장 길게 이어지며 축구장 3만개 넓이가 불에 탔고 6백 채가 넘는 건물이 피해를 보는 등 피해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조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산불 복구비는 2000년 동해안 산불 복구비인 1,67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냉난방과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했다. 주민들은 2년 안에 집을 다시 지어야 하며, 임시주택이 싫은 주민은 2년 간 임대료 50%를 감면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이재민 안정지원 TF팀을 구성해 임시주거시설 수요파악에 나섰다. 이밖에 건보료,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혜택 등 간접지원도 추진중이다. 기후 이상으로 기온이 오르고 가뭄이 늘면서 산불위험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2. 4. 3.	시청률	0.000

【총 평】

‘국내 공간정보가 한 곳에 - 국가공간정보플랫폼’은 지난 5월 이 달의 뉴딜에 선정된 웨이버스의 전무로부터 국내 공간 정보를 융·복합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K-Geo플랫폼의 성공 스토리를 들었다. ‘K-GEO 플랫폼’은 국가와 공공에서 생산된 공간정보의 생산과 수집, 수집, 가공, 제공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공간 정보 분야에서 외국산 소프트웨어(SW)의 의존에서 탈피해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 주목도를 끌었다. 개인적 성공에서 나아가 창업 동기들의 끈끈한 결집력과 믿음이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K-Geo플랫폼은 국가가 만든 공간 정보를 수집해서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다양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고, 비전문가도 이를 이용해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으며, 행정 문제도 간소화할 수 있다. K-Geo플랫폼이란 공간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다. K-Geo플랫폼은 공간정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필요한 공간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제 까지 20년동안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간정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가공하고 활용하는 개별기관에 있던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담당했던 공간 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 활용 하는 시스템을 하나로 구축한 것이다. 기존의 시스템이 20년이 넘었고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의존해 오고 있었는데 완벽한 국내 기술력으로 구축했다.

우리나라 250여개 지자체의 비용이 절감된다면 연내 40억 이상이 절약되고 실시간 갱신되는 데이터를 사용하면 250억 원의 비용이 줄어든다. 이 시스템을 국민이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그 이익은 무한대로 증가할 것이다. K-Geo플랫폼을 만들면서 대민서비스를 포함시켰으므로 이러한 행정에 쓰이는 비용이 절감되었다.

웨이버스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철저한 보안 아래에서 진행해야 하는 점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리고 20여 년간 운영해 온 시스템을 전환하는 그 과정에 결코 쉽지 않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어려웠는데 디지털 뉴딜 정책덕분에 3년 동안 270억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스마트폰 하나이면 모든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요즘, K-Geo플랫폼은 이미 있는 정보에 더해서 변화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달의 뉴딜’로 선정된 이유는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공공부분의 비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경제 기반 사회에 유용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서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포용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한국판 뉴딜의 비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프로그램	생방송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2. 4. 7.	시청률	0.009

【총 평】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발생추이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엔데믹 전환에 대해 소개했다. ‘PICK&PICK’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남녀 구분 없다’, ‘달을 향해! 8월,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발사’, ‘물가 10년 만에 4%대 상승"에 따른 최근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거리두기 해제 필요 시점까지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전망을 알아본 부분이 시청자들의 주목도를 높였다. 또 디지털 성범죄 증가의 실태와 원인, 문제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민법상 인격권 도입 등 당국의 대책까지 세밀하게 다루었고,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발사 계획을 다룬 부분은 우리나라 우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긍심과 기대감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주째 감소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1주 만에 1미만으로 떨어졌다. 외신에서는 한국이 최초의 엔데믹 국가가 될 것으로 보도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전파가 너무 빨라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지므로 해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일상체계로의 전환은 조금씩, 천천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부터는 국제선 항공편이 매주 100회씩 증편되고 국제선도 정상화될 예정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오미크론과 오미크론 스텔스가 합해진 XE 변이가 발생했고 곧 국내에도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치명률, 백신 효과 등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만약 기존 변이에 비해 위험성이 있다면 방역 조치 재가동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오미크론이 상하이에 상륙하면서 코로나 제로 정책인 상하이 정면 봉쇄 정책을 무기한 연장했다. 상하이의 모든 기업이 운영을 멈췄고 병원의 경우에는 응급환자, 암환자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 중국산 백신 접종률도 낮은 상황에서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PICK&PICK’에서는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절을 발표했는데 남성 피해자가 1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여성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예상외의 결과로 주목받고 있다. 또 8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이 발사될 예정이다. 2030년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서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현재 달 탐사선에 대한 명칭공모전이 이뤄졌고 6만 건 이상의 응모에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5월 초 결정될 예정이다.

2011년 12월 이후 11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하고 있다. 주원인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보이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런 현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음식 재료가 되는 밀 공급의 차질,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이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가 기존 20% 인하에서 30% 인하로 보다 확대된다.